

## 7강 국가의 성립과 발전

### 1.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핵심 포인트

[학습내용 및 핵심포인트]

1. 국가 성립의 배경과 과정
2. 여러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들
3. 국가의 구조와 상호 교섭

[학습목표]

1. 동아시아 각지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는 지역별로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성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구조와 성격은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자연환경에 따라 달랐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한이 인근 지역에 대한 정복을 통해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 사례

#### 상의 청동기와 삼성퇴의 무사 인물상

- 네모난 상의 청동기는 확실한 최초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상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청동기이다. 이 청동기는 은허 부호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사모무라는 묘호가 새겨져 있다. 높이가 133cm, 무게가 875kg 이나 되는 무거운 청동기이다. 상왕은 모든 일을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은 다음에 결정하였으므로, 신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청동기는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을 담는데 사용하였다.

- 삼성퇴에서 발견된 인물상은 점을 치는 무사의 모습으로, 역시 은과는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오늘날의 쓰촨성 광한시에서 발달한 삼성퇴문화에서도 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높이가 1.7m나 되는 실물 크기의 인물상이며, 상의 청동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3. 본 학습 내용

#### 1. 국가 성립의 배경과 과정

국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수준의 정치체이다.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어 생산력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급이 분화되었다. 경제력과 무력을 갖춘 지배층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치체가 생겨났고, 작은 규모의 정치체가 인근의 다른 정치체를 통합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 국가의 중심지는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가지 제도가 생성되었다.

국가의 성립 과정은 지역에 따라 달랐고, 그 시기도 차이가 컸다. 또 국가의 성격도 달랐다. 황하 중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2천년 무렵에 국가가 성립되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황하 지역과는 다른 청동기문화를 발전시켰던 북방 유목지역에서는 다른 성격의 국가가 출현하였으며, 한반도와 베트남 지역에서 잇달아 국가가 성립되었다.

현재 문헌에 기록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는 치수에 성공한 우가 오늘날의 산시성 남부와 허난성 중서부 일대에 세웠다는 하이다. 그 뒤를 이은 상은 황허 중류 지역에서 세워졌는데(기원전 17세기),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에서는 왕궁터, 왕릉, 점을 친 기록인 갑골문, 다양한 청동기와 옥기 등이 발견되었다. 은왕은 상제를 모시는 종교적인 제사장의 기능과 정치적인 왕의 기능을 겸하였지만 왕권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였다.

상은 점차 주변 부족과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세력을 확대해갔다. 주 무왕은 이러한 상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은 강족 등 주변의 나라와 힘을 합쳐 상을 무너뜨렸다(기원전 11세기). 황허 중·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주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정복한 지역에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봉건제는 혈연에 기반을 둔 종법질서를 왕과 제후, 제후와 경대부 등의 정치적인 관계에 확대시켜 적용한 제도이다. 주왕은 스스로를 천자라고 부르면서 천자는 무력이 아니라 덕에 의해 통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주 천자는 봉건제로 제후들의 지위와 영토를 존중하고 책봉과 조공을 통해 상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의 자립성이 높아지고 왕권은 약화되어 주의 봉건제는 점차 무너져갔다. 주는 서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동쪽의 낙읍으로 옮겼지만(기원전 8세기) 그 영토와 세력은 큰 제후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시기부터 춘추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세력이 강한 제후들이 다른 제후들과 서로 맹약을 맺고 낙읍에 있던 주왕을 대신하여 정국을 주도해 나아갔다.

#### 2. 여러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들

봉건질서의 붕괴는 제후와 그들에게서 땅을 분봉받은 경대부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춘추시대에 강력한 제후국의 하나였던 진(晉)이 경대부들에 의해 韓, 魏, 趙 세 나라로 분열되었는데(기원전 5세기) 이를 계기로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전국시대는 내부의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기의 보급이 대규모 정복전쟁을 부채질하였다.

각국의 군주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에 나섰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것은 진(秦) 효공 때 실시한 상앙의 개혁이었다. 상앙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엄격한 법치를 강조하면서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연좌제를 시행하여 씨족질서를 무너뜨리고 군공에 따라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부여했다.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으며, 농민들 사이에 빈부의 불균형을 없애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풍흉에 따라 곡식 가격을 조절하고 화폐를 국가에서 직접 주조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진은 마침내 진시황 때에 통일을 달성하였다(기원전 221). 진시황은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지상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과시하였고, 전국을 군현제로 편성하여 중앙집권

을 더욱 강화하였다. 도량형과 화폐 및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여 경제와 행정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북방의 흉노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진시황이 세운 통일왕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전국을 순행하는 한편 불로불사를 추구했던 진시황이 사망하자 환관이 발호하여 내정이 문란해지고 엄격한 법치와 대토목공사에 동원된 데 따른 불만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진이 멸망하고 반란을 주도한 항우와 유방이 세운 초와 한이 각축을 벌인 결과 한이 승리하여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하였다. 한은 엄격한 법치를 완화시키는 한편 균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안정을 꾀하였다.

랴오닝 지역에서는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고조선은 인접 지역을 통합하면서 한반도에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에서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무렵 강력한 왕권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여 랴오허강을 경계로 연과 대립하였으나, 연의 침입으로 타격을 받아 중심지를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진·한이 통일전쟁을 전개하던 때 연의 위만이 고조선으로 와서 서쪽 변경 수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준왕을 축출하고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년). 이 무렵 고조선에서는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의 소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한과 대립하였다.

기원전 4세기 무렵 발해만 연안에서는 예맥족이 부여를 세웠으며, 삼국사기에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는 고구려도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정치체를 형성하였다.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산골짜기에서 부여족의 일파가 세운 고구려는 현도군을 몰아내고(기원전 75년) 소노부의 부장을 왕으로 하는 연맹왕국을 건설하였다. 부여족의 일부는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우고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해 나갔으며,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진한 소국의 하나였던 사로국을 중심으로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이 결합하여 신라를 세웠다(기원전 1세기).

오늘날 광둥으로부터 북부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은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베트남 지역의 청동기 문화가 절정에 도달했던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 무렵, 건국설화에 의하면 반랑(文郎)이라는 나라가 산간지역에서 건국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반랑을 멸망시킨 어우락(甌貉) 왕국은 하노이에서 멀지않은 꼬로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삼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고대국가의 모습은 현재의 광저우를 중심으로 조타(趙佗)가 세운 남월이 어우락을 복속시키고 북부 베트남을 포괄하면서 나타났다(기원전 2세기 후반).

북부 유목지대에서는 흉노가 기원전 3세기 말 역사에 등장하였다. 흉노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 방어해야 할 정도로 강성하였다. 진의 장군 몽염에 의해 현재의 황하의 만곡으로 둘러싸인 오르도스 지역에서 밀려났지만, 두만선우 때 감숙 서부지역에 있던 月氏를 공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의 아들 목특선우(기원전 209-174)는 만주 경계에 있던 동호를 격파하고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역을 통합하여 패자로 등장하였다. 목특과 그의 아들 노상은 기원전 2세기 후반 서부 감숙의 월씨를 완전히 서쪽으로 쫓아내며 세력을 확장했다.

일본열도에는 기원 전후 무렵에 100여개의 소국이 분립하였다. 3세기 경에는 30여개로 통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규슈 북부 후쿠오카 지역에 있었던 奴國과 야마타이국이다. 야마타이국은 여러 소국을 통할한 연맹왕국의 맹주였다. 이러한 소국들은 5세기 무렵 야마토 정권으로 통합되었다.

### 3. 국가의 구조와 상호 교섭

국가 성립 초기에 정치권력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의 왕은 조상신, 자연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으며, 고조선의 단군왕검도 정치 지배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제사를 중시하였으므로 제사에 사용하는 희생물은 청동기 같은 특별한 그릇에 담았으며, 따라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청동기를 만들었다. 초기에 미약하였던 왕권은 차츰 강화되고 왕위는 아들에게 상속되었다. 후대인들은 초기 국가를 자신들의 첫 국가로 인식하였고, 신화를 통해 이를 신성화하였다.

왕을 보좌하는 관료가 출현하여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왕권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 군대를 거느렸다.

첫 통일왕조인 진에서는 3공9경[三公九卿]을 두었으며, 고조선에서는 裨王, 相, 卿, 大夫, 大臣,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을 두었다. 흉노의 선우 예하에는 여러 명칭의 왕들이 존재하였다. 왕은 각기 영지를 보유하고 1만 명 정도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에 편제의 하위조직을 가져, 통치기구가 군사조직의 형태를 띠었다.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은 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변화되었다. 주에서는 왕의 일족을 봉건제후로 임명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봉건제후들이 독립하고 봉건제후의 가신들도 국가를 세워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시대를 통합한 진은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를 한은 수도와 가까운 곳에서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관동지역에는 제후 왕을 세워 그들에게 통치를 일임했다(군국제). 그러나 정국이 안정되자 차츰 제후를 제거하고 마침내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제국을 완성했다.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법을 만들어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특히 진은 상양 이사 같은 법가를 등용하여 엄격한 법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고조선에도 8조의 법금을 시행하였다. 또한 세습적인 신분제가 만들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었다.

소국 단계에서부터 국가 사이에는 교섭과 갈등이 빈번하였다. 국가는 정복이나 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노예를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빈번히 침략했다. 또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목민인 흉노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농경민에게서 획득해야 했으므로, 교역과 침략을 병행했다. 흉노는 한이 통일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산서를 공격하여 평성에서 한 고조가 이끄는 한 군대에 승리하였다. 한은 공주를 시집보내 화의를 맺었다(기원전 201). 이 승리로 한과 흉노 사이에 공납체계가 성립되었고, 흉노는 오환 등 주변 종족에게서 공물을 징수하는 등 유목국가의 공납체계를 구축했다. 고조선은 연과 대립하다가 침략을 받기도 하였지만, 한과 교역하며 우수한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으며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한 무제의 정복전쟁이었다. 무제는 당시까지 계속 한을 공격하던 흉노를 몽골고원에서 몰아내고 감숙지역에 둔전과 군현을 설치하였다. 남쪽으로는 남월(기원전 111년),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했다(기원전 108). 위만조선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과 한의 중계무역을 통해 이득을 독점하며 성장하고 있었고,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퀴즈

1. 국가는 어느 때 처음 성립되었나?

- ① 구석기시대 ② 신석기시대 ③ 청동기시대 ④ 철기시대

2.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은?

- ① 군주권의 약화 ② 유학이 정치지배이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음 ③ 부국강병의 추구 ④ 예의와 질서의 존중

3. 고조선과 남월을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하였으며 흉노를 몽골고원에서 몰아낸 왕은?

- ① 수 양제 ② 한 무제 ③ 진시황 ④ 광개토대왕

## 5. 학습정리

- 문헌상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는 하**이며, 그 뒤를 이어 상이 황허 중류에서 건국됨. 상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에서는 왕궁터, 왕릉, 갑골문, 청동기 등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됨.
- 상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는 봉건제를 실시하여 정복한 지역에 제후를 보내 지배함**.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자 제후의 자립성이 높아지고 왕권은 약화되어, 봉건제가 무너지게 됨. 그 결과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를 진 나라가 통일함. 진은 군현제를 실시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함.
- 라오닝 지역에서는 고조선이 성립되었고, 발해만 연안에서는 부여가 건국됨.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건국됨.
- 북부 베트남과 광동 지역에는 반량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설화가 있으며, 기원전 2세기 후반 남월이 건국됨.
- 유목지대에서는 흉노가 기원전 3세기 말에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함.
- 일본열도에서는 3세기 경에야 소국이 30여개로 통합되었으며, 5세기 경 야마토 정권이 수립됨.
- 왕은 정치권력자인 동시에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료제가 출현하였고, 문서 행정을 하였으며, 빈번히 정복전쟁을 벌임. 한 무제는 고조선과 남월을 멸망시키고 흉노를 몽골고원에서 몰아내고 군현을 설치함.